

아동기 정서적 학대 경험과 초기 성인기 이성관계 만족도 간의 관계: 초기부적응도식과 정서표현 양가성의 매개효과*

조 현 정

이 승 연†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아동기 정서적 학대 경험과 초기 성인기 이성관계 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초기부적응도식과 정서표현 양가성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18세~40세의 성인 남녀 중 미혼이며 현재 이성교제 중인 310명을 대상으로 자기보고식 설문지를 실시하였으며, 변수들 간의 전체적인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구조방정식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아동기 정서적 학대 경험과 초기 성인기 이성관계 만족도 사이에서 초기부적응도식이 단순매개효과를 나타냈으며, 아동기 정서적 학대 경험이 초기부적응도식과 정서표현 양가성을 순차적으로 거쳐 초기 성인기 이성관계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이중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아동기 정서적 학대 경험으로 인해 이성관계에서 문제를 겪고 있는 성인을 위한 효과적인 개입전략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요어 : 정서적 학대, 이성관계 만족도, 초기부적응도식, 정서표현 양가성

* 본 연구는 조현정의 2014년도 석사학위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 교신저자: 이승연, 이화여자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심리학과, (120-750) 서울시 서대문구 이화여대길 52
E-mail: slee1@ewha.ac.kr

아동학대는 아동의 건강한 발달과 적응을 위협하고 신체적·심리적 부적응 문제를 야기하는 행위임에도 과거에는 단순히 가정 내 훈육 및 교육 수단으로 간주되면서 큰 관심을 끌지 못하였으나, 최근 아동학대의 심각성이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2012 아동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한 해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총 10,943건으로 전년도 신고 사례에 비해 7.9% 가량 증가했으며 2001년 4,133건에 비해(보건복지부, 2002) 2.64배 증가한 수치이다. 이는 우리나라도 아동학대 문제가 심각한 수준인 것과 동시에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증가한 것을 시사한다(보건복지부, 2012).

우리나라의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학대의 유형을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방임의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 중 정서적 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및 기타 가학적인 행위들을 일컫는 것으로, 아동학대 전체 신고 건수의 38.1%를 차지하며(보건복지부, 2012), 미국 학대 아동의 19.3%(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2010), 일본 학대 아동의 29.5% (厚生労働省, 2012)가 경험할 정도로 빈번하게 일어나는 학대 유형으로 볼 수 있다.

경험적 연구에 따르면 아동기 정서적 학대 경험은 아동기의 낮은 자존감, 우울, 분노, 불안, 자살, 물질 사용 등과 관련이 높으며(Hornor, 2010; Kaplan, Pelcovitz, & Labruna, 1999; Mullen, Martin, & Anderson, 1996), 성인이 된 이후에도 대인관계에서의 어려움, 정서 조절의 어려움, 섭식문제, 우울, 불안, 해리, 낮은 자존감, 경계선 성격 특성, 공격성, 자해행동, 학교 적응 문제 등 광범위한 문제

들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김은경, 2009; 조옥자, 2005; 최지경, 2007; 한지숙, 이재연 2005; Allen, 2008; Glassman, Weierich, Hooley, Deliberto, & Nock, 2007; Krause, Mendelson, & Lynch, 2003; Wright, Crawford, & Del Castillo, 2009). 특히 정서적 학대는 여러 학대 유형 중 이후의 삶에서 중요한 타인과의 친밀감을 발달시키는 능력에 가장 큰 손상을 입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Davis, Petretic-Jackson, & Ting, 2001), 초기 성인기의 가장 친밀하고 밀착된 관계가 이성관계라는 점에서(Furman & Shaffer, 2003) 아동기에 정서적 학대를 경험한 개인은 이성관계에서 어려움이 있을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초기 성인기는 친밀한 이성관계의 형성이 발달적 과제로 중시되기 때문에 이성관계의 중요성이 특히 강조되는 시기이다(Erikson, 1968; Shiner & Masten, 2002). 이성관계에서의 불만족감은 신체적, 심리적 문제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고 개인의 전반적 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홍대식, 1998; Braithwaite, Delevi, & Finchman, 2010; Lloyd & Cate, 1985). 따라서 이러한 이성관계의 어려움에 기여할 수 있는 관련변인으로 아동기 정서적 학대경험에 대해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으나 정서적 학대와 이성관계 간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알아본 국내 연구는 많지 않은 실정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아동기 학대 경험 중 이성관계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정서적 학대에 초점을 맞추어 이성관계와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한편 아동기 학대 경험이 성인기 이성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본 연구들은 학대 경험이 성인기 이성관계에 간접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매개변인을 통해 설명력이 더

높아진다고 제안한다(Beach, Smith, & Fincham, 1994; Bradbury & Shaffer, 2012; DiLillo, Lewis, & Loreto-Colgan, 2007). 즉, 학대 경험은 아동의 발달 및 적응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쳐 근본적인 손상을 야기하므로(Lee & Hoaken, 2007), 시간이 지나고 더 이상 학대를 경험하지 않아도 학대 경험으로 인한 다른 문제들이 지속되면서 성인기 이성관계의 어려움을 야기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아동기 정서적 학대 경험이 초기 성인기 이성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인 기제를 밝히는 것은 현재 시점에서는 바꿀 수 없는 과거의 정서적 학대 경험과 현재의 이성관계 사이에서 변화 가능한 요인을 찾아 보다 효과적인 개입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돕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아동기 정서적 학대 경험과 성인기 이성관계 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들에서 주로 사용한 매개변인에는 애착(Reyome, 2010), 초기부적응도식(Messman-Moore & Coates, 2007), 자기효능감과 통제소재(조은정, 2004), 자기비난(Lassri & Shahar, 2012), 정서표현 양가성(김준홍, 2009), 역기능적 정서조절(Bradbury & Shaffer, 2012) 등이 있다. 이러한 매개변인들은 아동기 정서적 학대 경험이 성인기 이성관계에 미치는 영향에서 인지적, 정서적 차원의 변인들이 매개역할을 한다는 것을 시사하며, 아동기 학대 경험이 인지적, 정서적 측면에 다각적으로 영향을 미침으로써 부적응을 유발한다는 주장을 지지하고 있다(Dutton, 1999).

그러나 이와 같은 기존 선행연구들은 대체로 단일 매개변인의 역할을 검증하는 것에 그쳤으며, 정서적 학대 경험이 성인기 이성관계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다수의 매개변인들이 어떠한 구조적 관련성을 가지고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 이

에 본 연구에서는 인지와 정서를 함께 탐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선행연구의 결과(Coombs, Coleman, & Jones, 2002)에 근거해 지금까지 보고된 아동기 정서적 학대 경험과 성인기 이성관계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요인들 가운데, 인지적 요인인 초기부적응도식과 정서적 요인인 정서표현 양가성을 동시에 포함시키고 이 요인들 간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정서적 학대 경험과 성인기 이성관계 간의 관계를 보다 효과적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초기부적응도식(early maladaptive schema: EMS)은 생애 초기에 시작되어 전 생애동안 정교화되며 개인의 부적응을 초래하게 되는 자기-패배적인 감정과 사고의 패턴이다(Young, Klosko & Weishaar, 2003). 이는 충족되지 못한 핵심적 정서욕구, 생애 초기의 유해한 경험, 정서적 기질에서 비롯되며, 과거에 경험했던 외상과 비슷하다고 지각된 생활 사건들에 의해 촉발된다. Young 등(2003)은 18개의 초기부적응도식을 제시했으며, 충족되지 못한 핵심적 정서 욕구에 따라 이들을 5개의 도식 영역(단절 및 거절, 손상된 자율성 및 손상된 수행, 손상된 한계, 타인-중심성, 과잉경계 및 억제)으로 분류했다.

정서적 학대는 Young이 제시한 생애 초기의 유해한 경험들 중 욕구가 심하게 좌절되는 경우와 외상 또는 고통을 겪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경험들은 초기부적응도식 중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안정감, 돌봄, 사랑, 소속에 대한 욕구가 채워지기 힘들다고 지각하게 되는 단절 및 거절 영역의 다섯 개 도식(유기/불안정, 불신/학대, 정서적 결핍, 결함/수치심, 사회적 고립/소외)을 발달시키기 쉽다(Bernstein, 2002; Young et al, 2003). 실제로 선행 연구들은 초기부적응도식이 이후

의 이성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보여 준다. 단절 및 거절 영역 중 특히 유기와 관련된 초기부적응도식은 결혼 만족도와 부적 상관을 나타내었고(Nemati, 1996), 대인관계에서의 어려움과는 강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Freeman, 1999). 국내연구에서도 유기와 관련된 초기부적응도식과 이성관계 만족도는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여, 초기부적응도식이 강할수록 이성관계 만족도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설아, 박기환, 2013). 따라서 정서적 학대와 가장 관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단절 및 거절 도식을 선택하여 다른 변인들과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정서적 차원의 매개변인인 정서표현 양가성(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싶은 욕구가 있지만 이를 억제하며 갈등하는 것으로, 정서를 표현하고 싶지만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 고민하는 것과 정서를 표현했으나 그렇게 한 것에 대해 후회하는 만성적 경향이다(King & Emmons, 1990). 정서표현에 대한 갈등을 많이 겪는 사람은 우울과 불안, 심리적 고통, 반추사고, 강박적 경향이 높으며, 신체증상이 더 많고 주관적 안녕감이 낮다고 보고된다.(Katz & Campbell, 1994; King, 1993; King & Emmons, 1990; Wenzlaff & Bates, 1998). 또한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를 부정하고 회피하는 대처방식을 주로 사용하고 도움 요청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며, 공감이나 지지를 덜 받는다고 지각하는 경향이 있다(Emmons & Colby, 1995).

Eisenberg, Cumberland와 Spinrad(1998)의 정서의 사회화 이론에 따르면 부모가 자녀의 정서에 대해 보이는 반응이 정서에 대한 아동의 지각, 표현 및 조절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아동의 부정적 정서에 대해 부모

가 무시 반응(invalidation)을 보이는 경우 아동은 정서 표현에 대한 죄책감, 수치심, 고통을 느끼며, 이러한 부정적 감정을 예방하기 위해 정서적 각성이 일어날 때 표현하지 못하고 이를 자동적으로 억제하게 만들 수 있다(노지영, 정윤경, 2010; 정윤경, 박보은, 2010; Krause et al, 2003; Pennebaker, Hughes, & O'Heeron, 1987). 정서적 학대 가정에서 위와 같은 부모의 정서 무시가 가장 빈번하고 심하게 일어난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Linehan, 1993), 정서적 학대를 경험한 아동은 정서표현에 대한 양가성을 느낄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또한 Goldsmith와 Freyd(2005)도 학대적인 가정에서 자란 경우 아동은 자신의 부정적 정서가 수용되기 어렵다고 느끼기 때문에 정서에 반응하고 표현하는 것에 어려움을 가지게 된다고 보았다.

이렇게 정서표현에 대한 양가성이 높은 개인은 정서의 상호교환을 통한 친밀한 관계 발전과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정서적 지원을 어렵게 하므로 친밀한 관계에서 문제를 경험하기 쉬우며(Wei, Vogel, Ku, & Zakalik, 2005), 이는 초기 성인기 이성관계와 결혼관계까지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Gross & John, 2003; Richards, Butler, & Gross, 2003). 국내연구에서도 정서자각과 표현, 정서표현 양가성이 대인관계능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 있었으며(장정주, 김정모, 2008), 정서표현 양가성이 높은 혼란집단은 자신의 정서를 적절히 표현할 자신이 없다는 무능감과 부정적 정서를 표현하여 거부되거나 상처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며, 이것이 대인관계 능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경희, 김봉환, 2010).

한편 초기부적응도식과 정서표현 양가성 간

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살펴본 경험적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그러나 아동기 경험을 바탕으로 내면화된 초기부적응도식이 이후의 사고와 감정 및 행동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다는 Young 등(2003)의 이론과 정서표현으로 인해 타인과의 관계에서 갈등을 초래할 것이라는 부정적 인지와 기대가 정서표현의 억제 및 갈등으로 이어진다는 선행연구들(김은정, 김진숙, 2010; 최해연, 민경환, 2005; Krause et al., 2003; Pennebaker, 1985)의 결과에 근거해 초기부적응도식의 선행적 영향력에 대한 가정을 내릴 수 있다. 즉, 아동기 정서적 학대 경험으로 인해 정서표현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타인과의 관계에서 갈등을 유발할 것이라는 부정적 인지와 기대가 내재화되어 정서표현에 대한 갈등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통해 볼 때 아동기 정서적 학대 경험은 개인의 초기부적응도식과 정서표현 양가성에 각각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초기부적응도식과 정서표현 양가성을 순차적으로 거쳐 초기 성인기 이성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해 볼 수 있다(연구모형). 그러나 초기부적응도식과 정서표현 양가성 간의 인과적 관계에 대한 직접적 선행연구가 거의 없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이 두 변인 간의 관계를 제외한 경쟁모형 역시 선정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본 연구는 단일 매개변인만을 고려하였던 기존 연구들의 단점을 보완하여 인지적 요인과 정서적 요인을 모두 포함하고 이들 간의 전체적 관계를 파악함으로써 정서적 학대 경험으로 인해 이성관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인들을 위한 보다 효과적인 치료적 개입을 개발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초기부적응도식이 아동기 정서적 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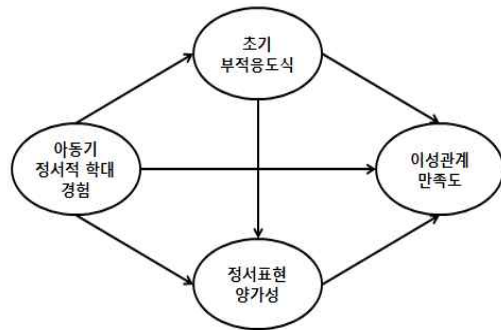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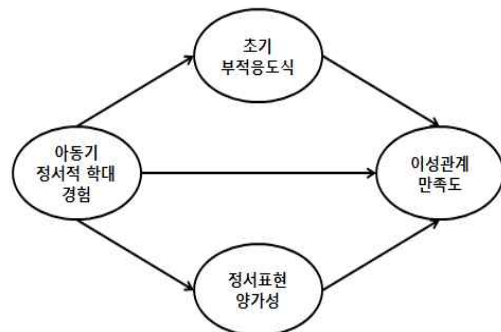


그림 2. 경쟁모형

대 경험과 초기 성인기 이성관계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가? 둘째, 정서표현 양가성이 아동기 정서적 학대 경험과 초기 성인기 이성관계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가? 셋째, 아동기 정서적 학대 경험과 초기 성인기 이성관계 간의 관계에서 초기부적응도식과 정서표현 양가성의 이중매개효과가 있는가?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Levinson, Darrow, Klein, Levinson,

및 McKee(1978)의 발달 단계에 따라 초기 성인기를 만 17세에서 40세로 정의하고 서울, 경기 지역에 거주하는 초기 성인기에 해당하는 성인 남녀 중 미혼이며 현재 이성교제 중인 389명을 대상으로 자기보고식 설문지를 실시하였다. 설문참여자는 서울 소재 2개 대학교의 학생(196명), 서울, 경기 소재의 3개 회사에 근무하는 직장인(160명)과 정서적 학대 경험이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예상된 서울 소재의 1개 상담소에서 상담을 받고 있는 성인(23명)을 포함하였다. 이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18명(4.63%)과 아동기 정서적 학대 경험이 전혀 없다고 응답한 61명(15.68%)을 제외하여 최종적으로 310명(남 98명, 여 212명, $M=26.26$, $SD=4.14$)의 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연구 대상에 대한 인구 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20-24세는 156명(50.3%), 25-29세는 86명(27.8%), 30-34세는 47명(15.1%), 35-39세는 21명(6.8%)이었다. 또한 연구 대상자들의 직업은 학생 183명(59.0%), 직장인 118명(38.1%), 무직 9명(2.9%)이었다.

측정도구

정서적 학대

정서적 학대 경험을 측정하기 위해 고성혜(1992)가 제작한 방임,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에 대한 아동학대 척도로부터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 24개 문항을 분류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동기와 관련된 학대 영역(예, “부모님의 그때그때 기분에 따라 나에게 대하는 태도가 달랐던 때가 있다.”), 행동의 결과와 관련된 학대 영역(예, “내가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낄 정도로 부모님이 꾸짖은 적이 있다.”), 행동 차원의 학대 영역(예, “너를 괜히 낳았

다.”라는 말을 얼마나 자주 경험했는지 여부)으로 분류된다. 어린 시절의 경험을 토대로 각 문항의 내용을 얼마나 자주 경험했는지를 4점 Likert 척도(1: 한 번도 없었다 ~ 4: 자주 경험 했다)로 평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의 정서적 학대 경향이 높았음을 의미한다. 고성혜(1992)가 보고한 정서적 학대 전체 척도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97이었고, 조은정(2004)의 대학생 연구에서 보고된 전체 척도의 내적 합치도는 .91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 문항에 대한 내적 합치도가 .87, 각 하위요인의 내적 합치도는 동기와 관련된 영역이 .73, 행동의 결과와 관련된 영역이 .82 행동 차원의 학대영역이 .80이었다.

이성관계 만족도

이성관계에서의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 Roach(1981)와 Frazier(1976)의 결혼만족도 척도(Marital Satisfaction Inventory: MSI)를 조성옥(1987)이 재구성한 결혼만족도 검사를 정민(2006)이 이성관계에 관련된 내용으로 수정한 이성관계 만족도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4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5점 Likert 척도로(1: 전혀 그렇지 않다 ~ 5: 매우 그렇다) 평정하고, 점수가 높을수록 관계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교제하기 전보다 지금이 더 행복하다.”, “나와 그녀)는 무엇이 옳고 정당한 행위라는 것에 대해 의견이 일치한다.”). 본 연구에서는 구조방정식 분석을 위해 문항 묶음화(item parceling)를 실시하여 네 가지 하위 차원(SAT1, SAT2, SAT3, SAT4)의 측정변인으로 구성하였다. 이설아, 박기환(2013)의 대학생 대상 연구에서 보고된 내적 합치도는 .95로 나타났다으며,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는 .94이었다.

초기부적응도식

초기부적응도식 중 단절 및 거절과 관련된 도식들이 정서적 학대와 가장 관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Young(1998)이 제작하고 이미엘(2006)이 번안한 Young 도식 질문지 단축형(Young Schema Questionnaire-Short Form: YSQ-SF)에서 단절 및 거절 영역을 분류하여 사용하였다. 단절 및 거절 영역에는 유기/불안정(예, “나를 보살펴 주거나, 고민을 나누거나, 내 말에 깊은 관심을 가져준 사람은 없었다.”), 불신/학대(예, “사람들이 날 이용할 거라고 느낀다.”), 정서적 결핍(예, “가까운 사람들이 내 곁을 떠날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더 매달리게 된다.”), 결합/수치심(예, “내 결점을 알고 나면, 아무도 나를 사랑해주지 않을 것 같다.”), 사회적 고립/소외(예, “나는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은 고독한 사람이다.”) 도식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도식별로 5문항씩 총 25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문항은 6점 Likert 척도로(1: 전혀 그렇지 않다 ~ 6: 매우 그렇다) 평정하며, 점수의 합이 클수록 해당 도식의 특징을 더 많이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20~30세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차미영(2010)의 연구에서 전체 문항의 내적 합치도는 .96, 각 하위척도의 내적 합치도는 .86~.93으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는 전체 문항의 내적 합치도는 .94, 각 하위척도의 내적 합치도는 .79~.91이었다.

정서표현 양가성

정서표현에 대한 양가성을 측정하기 위해 King과 Emmons(1990)가 개발한 정서표현 갈등 질문지(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Questionnaire: AEQ)를 최해연과 민경환(2007)이 번안하고 최해연, 이동귀, 민경환(2008)이 타당

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정서적인 표현에 대한 무능감과 정서표현의 결과로써 거부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포함한 자기-방어적 양가성(예, “종종 내가 실제로 느끼고 있는 것을 표현할 수가 없다.”)과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고려하거나 체면을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려는 노력을 반영한 관계-관계적 양가성으로 이루어져 있다(예, “누군가에게 화를 내고 나면, 그것이 계속 마음에 걸린다.”). 총 2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Likert 척도(1: 전혀 아니다 ~ 5: 매우 그렇다) 상에서 평정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정서표현 양가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최해연, 이동귀, 민경환(2008)의 대학생 대상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는 .90이었으며, 성인을 대상으로 한 김준홍(2009)의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는 .91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 문항의 내적 합치도는 .93, 각 하위요인의 내적 합치도는 자기-방어적 양가성이 .91, 관계-관계적 양가성이 .88이었다.

연구절차

본 연구를 위해 2013년 10월 19일부터 11월 4일까지 약 3주 간 서울 소재 2개 대학교 학생들과 서울, 경기 지역에 근무하는 3개 회사 직장인들, 서울 소재 1개의 상담소를 이용하는 성인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였으며, 연구 참여자들에게 설문지와 함께 연구 참여에 대한 설명문과 동의서를 제공하여 동의서에 서명하는 것으로 동의를 얻었고 동의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실시하였다. 설문 응답시간은 약 10분에서 15분 정도 소요되었다.

자료분석

자료분석에는 SPSS 18.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연구도구의 신뢰도 분석, 전반적인 기초통계 분석,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AMOS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측정모형을 확인하기 위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후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을 검증하기 위한 구조방정식 모형을 실시하였다. 또한 초기부적응도식과 정서표현 양가성의 매개효과 유의미성을 검증하기 위해 Sobel Test와 다변량 델타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변인들의 기술 통계

연구문제의 검증에 앞서 아동기 정서적 학대 경험, 이성관계 만족도, 초기부적응도식, 정서표현 양가성의 가능한 점수범위와 평균,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또한 측정변인의 정규성 가정 충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왜도와 첨도를 산출한 결과, 본 연구의 측정변인들은 정규성 가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1 참조).

주요 변인들의 상관분석 결과

각 변인들의 상관분석 결과, 정서적 학대 경험의 하위요인과 이성관계 만족도의 하위요인 간의 상관을 제외한 대부분의 측정변인들

결 과

표 1. 주요 변인들의 점수범위와 평균 및 표준편차

		가능한 점수범위	점수 범위	평균	표준 편차	왜도	첨도
정서적 학대 경험	동기	8-32	8-21	13.10	3.00	.64	-.12
	행동의 결과	6-24	6-23	9.45	3.25	1.31	1.88
	행동	10-40	10-22	11.44	2.45	2.23	3.99
초기 부적응 도식	유기/불안정	5-30	5-25	8.73	3.79	1.62	3.61
	불신/학대	5-30	5-28	10.67	4.39	1.16	1.83
	정서적 결핍	5-30	5-28	11.17	5.49	1.02	.39
	결함/수치심	5-30	5-25	8.36	3.90	2.00	4.13
	사회적 고립/소외	5-30	5-29	8.90	4.52	1.81	3.79
정서표현 양가성	자기-방어적	14-90	14-63	35.87	10.14	.11	-.60
	관계-관여적	10-50	10-50	31.26	7.13	-.10	-.28
이성관계 만족도	SAT1	10-50	15-50	40.91	5.47	-1.16	2.35
	SAT2	10-50	19-50	39.77	6.13	-.57	.01
	SAT3	10-50	16-50	39.73	5.76	-.94	1.21
	SAT4	10-50	17-49	38.80	5.97	-.95	1.80

주. SAT는 이성관계 만족도 척도를 문항 묶음화하여 구성한 하위요인을 말함

표 2. 주요 변인들의 상관분석 결과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 동기	1													
정서적 학대	.56**	1												
3. 행동	.47**	.51**	1											
4. 유기/불안정	.35**	.28**	.27**	1										
5. 불신/학대	.37**	.34**	.30**	.44**	1									
6. 정서적결핍	.38**	.35**	.34**	.35**	.55**	1								
7. 결합/수치심	.47**	.48**	.38**	.53**	.53**	.57**	1							
8. 고립/소외	.34**	.43**	.37**	.55**	.60**	.55**	.67**	1						
정서표현	.38**	.38**	.23**	.40**	.55**	.52**	.53**	.50**	1					
양가성	.28**	.27**	.17**	.22**	.34**	.24**	.28**	.28**	.56**	1				
11. SAT1	-.12**	-.10*	-.05	-.31**	-.21**	-.20**	-.24**	-.25**	-.35**	-.16**	1			
12. SAT2	-.18**	-.14*	-.04	-.36**	-.24**	-.27**	-.27**	-.21**	-.38**	-.25**	.82**	1		
13. SAT3	-.14**	-.10*	-.07	-.35**	-.19**	-.24**	-.26**	-.22**	-.30**	-.15**	.83**	.83**	1	
14. SAT4	-.14**	-.14*	-.06	-.31**	-.21**	-.21**	-.26**	-.24**	-.30**	-.15**	.80**	.78**	.83**	1

** $p < .01$, * $p < .05$, † $p < .10$

주. SAT는 이성관계 만족도 척도를 문항 묶음화하여 구성한 하위요인을 말함

은 전반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다. 먼저 정서적 학대 경험의 ‘동기’, ‘행동의 결과’는 초기부적응도식의 모든 하위요인, 정서표현 양가성의 모든 하위요인과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관찰되었으나($r=.27\sim.56, p<.01$), 이성관계 만족도의 하위요인과는 상관이 경미하거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r=-.09\sim-.18, p<.10$). 한편, 정서적 학대 경험 중 ‘행동’ 변인은 초기부적응도식과 정서표현 양가성의 하위요인 모두와 정적 상관을 보였으나($r=.17\sim.38, p<.01$), 이성관계 만족도의 모든 하위요인과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r=-.04\sim-.07, p>.10$).

초기부적응도식의 모든 하위요인은 정서표현 양가성의 모든 하위요인과 정적 상관이 있었으며($r=.22\sim.55, p<.01$), 이성관계 만족도의 하위요인과는 모두 부적 상관을 보였다($r=-.19\sim-.36, p<.01$). 또한 정서표현 양가성의 두 요인은 이성관계 만족도의 하위요인과 부적 상관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r=-.15\sim-.36, p<.01$).

아동기 정서적 학대 경험, 초기 성인기 이성관계 만족도, 초기부적응도식, 정서표현 양가성의 관계

구조모형의 검증

초기부적응도식과 정서표현 양가성이 아동

기 정서적 학대 경험과 성인기 이성관계 만족도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을 설정하고, 이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제안한 모형이 수집된 자료의 특성을 잘 반영하는지에 대해 검증하는 χ^2 외에 TLI(Turker-Lewis Index), CFI(Comparative Fit Index)와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를 이용하여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였다. 일반적으로 TLI와 CFI의 경우 0.9 이상일 때 적합도가 좋은 것으로 간주되며(Bentler, 1990), RMSEA의 경우 0.05 이하면 적합도가 좋은 모형, 0.08 이하면 적절한 모형, 0.10 이상이면 나쁜 모형으로 간주된다(Browne & Cudeck, 1993). 분석 결과, 본 연구의 모형은 자료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각 모형의 적합도와 차이검증 결과는 표 3과 같다.

모형의 검증 결과, χ^2 검증에서 연구모형의 χ^2 값은 139.84($df=71, p<.001$)로 나타났으며, RMSEA는 .06(90% 신뢰구간에서 .04~.07), TLI와 CFI는 각각 .96과 .97으로, 적합도가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모형 또한 χ^2 값이 197.27($df=72, p<.001$), RMSEA가 .08(90% 신뢰구간에서 .06~.09), TLI와 CFI가 각각 .94와 .95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χ^2 차이검증을 통해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의 적합도를 비교한 결과 간명성의 원리에 따라 연구모형이 더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Delta\chi^2=57.43$).

표 3. 연구모형 및 경쟁모형의 적합도 및 모형 차이 검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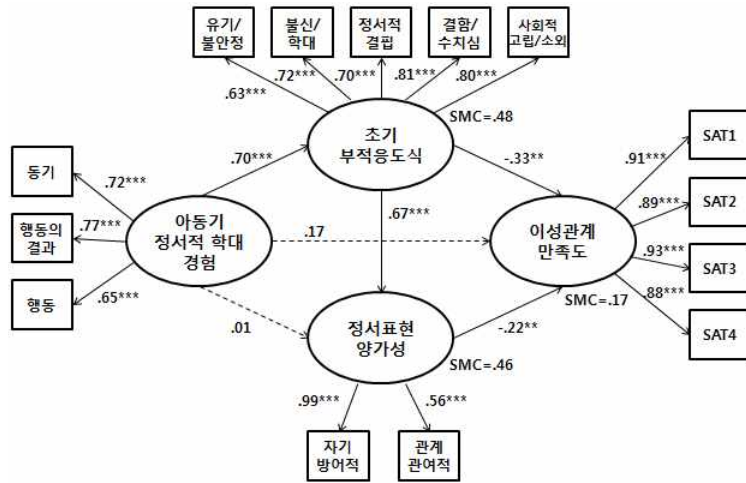
	χ^2	<i>df</i>	TLI	CFI	RMSEA (90% CI)
연구모형	139.84	71	.97	.97	.06 (.04~.07)
경쟁모형	197.27	72	.94	.95	.08 (.06~.09)
$\Delta\chi^2=57.4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구모형을 최종모형으로 채택하였다.

구조모형의 분석

최종모형의 모수 추정치와 각 경로계수의 통계적 유의성을 그림 3과 표 4에 각각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동기 정서적 학대 경험에서 성인기 이성관계 만족도로 가는 직접경로와 아동기 정서적 학대 경험에서

정서표현 양가성으로 가는 경로를 제외한 경로들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아동기 정서적 학대 경험이 초기부적응도식으로 가는 경로가 정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gamma=.70, p<.001$), 초기부적응도식에서 성인기 이성관계 만족도로 이어지는 경로가 부적적으로 유의미하였다($\gamma=-.33, p<.01$). 한편 아동기 정서적 학대 경험이 정서표현 양가성으로 이어지는 경로는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정서표현



*** $p<.001$, ** $p<.01$.

주. 그림에 제시된 계수는 표준화된 수치임. 점선은 유의하지 않은 경로임.

그림 3. 최종모형의 경로계수와 요인부하량

표 4. 최종모형의 경로계수

경로	비표준화계수	표준오차	표준화계수
정서적 학대 경험 → 이성관계 만족도	.53	.31	.17
정서적 학대 경험 → 초기부적응도식	1.04	.14	.70***
초기부적응도식 → 이성관계 만족도	-.69	.25	-.33**
정서적 학대 경험 → 정서표현 양가성	.26	.21	.01
정서표현 양가성 → 이성관계 만족도	-.27	.10	-.22**
초기부적응도식 → 정서표현 양가성	1.12	.21	.67***

*** $p<.001$, ** $p<.01$

양가성에서 성인기 이성관계 만족도로의 경로가 부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gamma = -.22, p < .01$). 마지막으로 초기부적응도식에서 정서표현 양가성 간의 경로계수가 $\gamma = .67$ ($p < .001$)로 유의하였다.

초기부적응도식과 정서표현 양가성의 매개효과 검증

최종모형에서 아동기 정서적 학대 경험이 초기부적응도식을 거쳐 성인기 이성관계 만족도에 이르는 단순매개효과와 아동기 정서적 학대 경험이 초기부적응도식과 정서표현 양가성을 차례로 거쳐 성인기 이성관계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이중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검증을 시행하였다. 정서표현 양가성의 경우, 최종모형에서 아동기 정서적 학대 경험과 정서표현 양가성 사이의 경로가 유의미하지 않았는데, 이는 아동기 정서적 학대 경험과 성인기 이성관계 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정서표현 양가성의 단순매개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에 대한 단순매개효과 검증은 시행하지 않았다.

먼저 단순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Sobel test를 사용하여 Z값을 산출한 결과, 아동기 정서적 학대 경험과 성인기 이성관계 만족도 간의 관계를 초기부적응도식이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Z = -5.61, p < .001$). 아동기 정서적 학대 경험과 정서표현 양가성 사이의 관계에서 초기부적응도식의 단순매개효과($Z = 8.62, p < .001$)와 초기부적응도식과 성인기 이성관계 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정서표현 양가성의 단순매개효과($Z = -5.31, p < .001$) 또한 모두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다변량 델타 방법을 이용하여

초기부적응도식과 정서표현 양가성의 이중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아동기 정서적 학대 경험이 초기부적응도식과 정서표현 양가성을 차례로 거쳐 성인기 이성관계 만족도로 이어지는 경로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Z = -4.84, p < .001$).

논 의

본 연구는 아동기 정서적 학대 경험과 초기 성인기 이성관계 만족도 간의 관계와 그 사이에서 인지적 요인인 초기부적응도식과 정서적 요인인 정서표현 양가성이 매개효과를 나타내는지 알아보려고 한 것으로, 이들 간의 전체적 관계를 파악함으로써 정서적 학대 경험으로 인해 이성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인들을 위한 보다 효과적인 치료적 개입을 개발하기 위한 것이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와 그에 따른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같이 아동기 정서적 학대 경험은 초기부적응도식 및 정서표현 양가성의 각 하위요인들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이성관계 만족도는 초기부적응도식 및 정서표현 양가성의 각 하위요인들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예, 이설아, 박기환, 2013; King, 1993; Nemati, 1996). 한편 정서적 학대 경험의 하위요인들과 이성관계 만족도 간의 상관은 경미한 수준이거나 나타나지 않아 아동기 정서적 학대가 성인기 대인관계와 이성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Davis et al., 2001)와는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그러나 DiLillo 등(2007)과 Rellini 등(2011)의 연구에서는 아동기 학대 경험이 성인

기 이성관계에 미치는 영향에서 상관의 정도가 약하거나 거의 나타나지 않았으며, 이를 아동기 학대 경험과 성인기 이성관계 사이에서 다른 변인이 매개효과를 가질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설명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초기부적응도식과 정서표현 양가성이 매개변인으로서의 역할을 하여 정서적 학대 경험과 이성관계 만족도 간의 상관의 영향력이 분산된 것으로 생각하여 이들 간의 구조적 관계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둘째, 아동기 정서적 학대 경험과 초기부적응도식, 정서표현 양가성, 초기 성인기 이성관계 만족도 간의 구조적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 아동기 정서적 학대 경험이 초기부적응도식과 정서표현 양가성 각각을 통해 영향을 미치는 경로와 초기부적응도식이 정서표현 양가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포함한 연구모형이 더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어 이를 최종모형으로 채택하여 분석하였다.

셋째, 최종모형을 분석한 결과, 아동기 정서적 학대 경험에서 초기 성인기 이성관계 만족도로 가는 직접 경로와 아동기 정서적 학대 경험에서 정서표현 양가성으로 가는 경로를 제외한 경로들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아동기 정서적 학대 경험과 초기 성인기 이성관계 만족도 간의 직접 경로는 유의미하지 않았는데, 이는 아동기 정서적 학대 경험이 초기 성인기 이성관계 만족도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기보다는 다른 매개변인들이 개입된다는 것을 시사한다(DiLillo et al., 2007). 따라서 아동기 정서적 학대 경험과 성인기 이성관계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할 때 그 사이에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다른 매개변인들을 함께 고려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한편,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경로들 중에서 가장 강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경로는 아동기 정서적 학대 경험에서 초기부적응도식으로 가는 경로로, 정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동기에 정서적 학대를 많이 경험할수록 초기부적응도식이 강하게 형성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단절 및 거절 영역의 초기부적응도식이 유기에 대한 두려움으로 친밀한 관계를 완전히 회피하거나(유기/불안정), 다른 사람을 신뢰할 수 없다고 생각해 자기개방을 하지 않고(불신/학대), 가까운 관계의 타인이 자신을 거부할 것이라고 생각하며(정서적 결핍), 자신의 결함 때문에 거절이 두려워서 수치스런 생각과 느낌을 상대방과 나누기를 꺼리고(결함/수치심),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느낌 때문에 소속감을 느끼지 못한다는(사회적 고립/소외) 내용임을 고려할 때, 이 결과는 정서적 학대를 경험한 경우 타인에 대한 불신을 가질 가능성이 높으며(Howes & Espinosa, 1985), 그 결과 정서적 학대 경험이 없는 성인들에 비해 사회적 고립감을 더 많이 경험한다는 선행연구들의 결과(Loos & Alexander, 1997)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초기부적응도식에서 이성관계 만족도로 이어지는 경로가 부적으로 유의미하였는데, 이는 단절 및 거절과 관련된 내용의 도식이 더 많이 활성화될수록 이성관계에서의 만족도는 낮은 경향이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단절 및 거절 도식을 가진 개인이 자신은 사랑받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이용당하거나 거부당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처받는 것을 두려워해서 타인과의 관계에서 자신을 개방하지 못하고 친밀한 관계에서 양가감정을 느끼고 회피해서 이성관계의 질

이 낮다는 구성렬(2010)의 연구 결과로 설명될 수 있다.

정서표현 양가성에서 이성관계 만족도로의 경로 또한 부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정서표현 양가성이 높을수록 이성관계에서 만족도가 낮아짐을 의미한다. 즉,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싶은 욕구가 있지만 어떻게 정서를 표현해야 할지 모르는 무능감이나 정서를 표현했을 때 거부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이를 억제할 경우 친밀한 관계에서 만족감을 덜 느끼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King(1993)은 이를 제한된 정서 표현으로 인해 상대방과의 정서를 공유하거나 교환하지 못하는 것이 상호 간 친밀감을 느끼지 못하게 하며, 그 결과 친밀한 관계에서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고 관계가 점점 악화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초기부적응도식에서 정서표현 양가성으로 이어지는 경로가 정적으로 유의미하여 초기부적응도식이 강할수록 정서표현 양가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동기 외상경험과 성인기 우울 간의 관계를 살펴본 김은정, 김진숙(2010)의 연구에서 정서표현에 대한 갈등이 정서를 표현했을 때 거부될 수 있다는 정서표현에 대한 기대나 신념을 포함하는 초기부적응도식(모든 하위유형 사용)의 영향을 받아 부적응을 유발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던 것과 같은 맥락이다.

넷째, 앞서 설명한 각 변인들 간의 경로가 유의미하였으므로 아동기 정서적 학대 경험과 초기 성인기 이성관계 만족도 사이에서 초기부적응도식과 정서표현 양가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매개효과를 나타내는지 알아보기 위해 Sobel test와 다변량 델타 방법을 사용하였다. 그 결과, 아동기 정서적 학대 경험과 초기 성

인기 이성관계 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초기부적응도식, 아동기 정서적 학대 경험과 정서표현 양가성 사이의 관계에서 초기부적응도식, 초기부적응도식과 이성관계 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정서표현 양가성이 유의미한 단순매개효과를 나타냈다. 이와 함께 초기부적응도식과 정서표현 양가성의 이중매개효과 역시 유의미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아동기 정서적 학대 경험과 초기 성인기 이성관계 만족도 간의 관계에 있어서 정서적 학대 경험으로 인해 형성된 초기부적응도식이 초기 성인기 이성관계 만족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초기부적응도식은 다시 정서표현 양가성을 심화시켜 간접적으로 이성관계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아동기 정서적 학대 경험은 그 자체만으로는 초기 성인기 이성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초기부적응도식과 정서표현 양가성이라는 매개변인을 통해서 매개효과를 나타내는 것이다. 즉, 아동기에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정서적 학대를 경험하는 경우 자신은 사랑받지 못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불안정하며 이용당하거나 거부당할 것이라는 내용의 부정적 신념과 기대를 형성하게 되고, 이러한 도식에 부합하는 경험이 누적되면서 타인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경험하고 이성관계에서 만족감을 느끼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부정적 도식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정서를 표현하는 것이 타인과의 관계에서 갈등을 초래할 것이라는 부정적 인지와 기대로 작동하여 정서표현에 갈등을 느끼고 정서 표현을 제한하게 되고, 그 결과 이성관계에서 정서의 상호교환이 어려워 친밀감을 느끼지 못하고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것으로도 설명될 수 있다. 이

러한 일련의 과정은 한 번 형성된 도식은 환경을 지각하고 새로운 경험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도식을 유지하고 정교화시키는 경험을 선택함으로써 개인의 사고와 정서,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Beck(2001)과 Young 등(2003)의 연구결과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기 정서적 학대 경험이 현재의 이성관계 어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를 돕고 개입에서 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할 변인들을 제시함으로써 실제적인 시사점을 제공한다. 먼저 초기부적응도식은 정서적 학대 경험과 이성관계 만족도 사이에서 강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정서표현 양가성에 선행하는 매개변인이라는 점에서 정서적 학대 경험으로 인해 이성관계가 원만치 못한 성인에 대한 개입을 시도할 때 우선적으로 파악하고 다루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아동기에 경험한 정서적 학대는 변화시킬 수 없지만, 학대 경험으로 형성된 사고나 신념은 충분히 변화할 여지가 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는 바꿀 수 없는 과거의 정서적 학대 경험 대신 초기부적응도식을 우선적으로 파악하고 도식에 대한 타당성을 끊임없이 확인하는 심리도식치료(Young, et al., 2003)가 개인 스스로 도식의 적절성을 평가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기초가 될 뿐 아니라 다른 변인에 초점을 맞추는 것보다 더욱 가치적인 치료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더불어 초기부적응도식이 촉발되었을 때 사랑받고 싶거나 혹은 거부당하고 싶지 않다는 마음으로 인해 정서를 억압하고 회피하는 정서표현 양가성 또한 이성관계 만족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 확인되었으므로, 자신이 경험하는 정서에 주의를 기울이고 적절하게 표현하도록 돕는 치료 및 상담이 효과

적일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다. 실제로 상담을 통해 자신의 정서를 적절하게 표현함으로써 대인관계 전반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친밀함을 가지게 되었다는 김정문(2010)의 결과는 정서표현에서의 갈등을 줄이는 것이 이성관계에서의 어려움을 완화시키고 만족도를 늘릴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정서에 초점을 맞추는 게슈탈트 치료와 대인관계에서 자신의 감정을 갈등 없이 표현하는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대인관계 향상 프로그램 등이 아동기의 정서적 학대 경험으로 인해 이성관계에서 어려움을 경험하는 내담자들의 문제를 완화하는데 효과적인 개입전략일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의 의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아동기 정서적 학대 경험과 성인기 이성관계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밝혀진 인지적, 정서적 변인을 함께 고려하여 각 변인들 간의 총제적인 관련성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단일 매개변인의 역할만을 검증했던 기존 연구들과 차별화된다.

둘째, 아동기 정서적 학대 경험이 초기부적응도식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히 크고, 초기부적응도식이 정서표현 양가성에 선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던 본 연구의 결과는 정서적 학대 경험으로 이성관계에서 어려움을 경험하는 개인들을 위한 개입전략을 마련하는 데 초기부적응도식을 다루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확인시켜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이 있다. 먼저 본 연구는 아동기 정서적 학대 경험에 초점을 맞추었으나 신체적 학대나 성적 학대 등 다른 학대 경험이 있는 피험자들을 통제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제한점을 가진다. 아동학대는 한 가지 유형만 발생하는

경우보다 여러 학대 유형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가 더 많으므로(보건복지부, 2012) 추후 연구에서는 다른 학대 유형을 통제하여 정서적 학대 경험이 이성관계에 미치는 순수한 영향력을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자료 수집과정에서 자기보고식 질문지를 통해 아동기 경험을 묻는 회고적 방식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응답자의 기억과 실제 학대 경험 사이에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부정적 경험을 묻는 문항에 대해서는 사회적 바람직성이 작용할 가능성을 높인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자가 현재 이성교제 중인 성인으로 한정되어 있어 이성교제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정서적 학대 경험이나 초기부적응도식, 정서표현 양가성이 심각한 사례가 제외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이러한 심각한 사례들을 포괄할 수 있도록 과거의 이성관계 경험까지도 고려하는 등 다른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고성혜 (1992). 아동학대 개념규정 및 아동학대에 대한 모, 자녀의 지각성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구성렬 (2010). 아동기 외상경험이 데이트 관계의 질에 미치는 영향: 심리도식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은경 (2009). 청소년의 피학대경험이 내적통제성과 공감능력을 매개로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2(1), 37-56.
- 김은정, 김진숙 (2010). 아동기 외상과 초기 성인기 우울수준과의 관계: 초기부적응도식과 정서표현양가성 및 회피대처방식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2(3), 605-630.
- 김정문 (2010). 불안정 애착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자동적 사고, 정서 인식, 정서표현 양가성,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김준홍 (2009). ACOA 집단과 non-ACOA 집단에서 부모의 정서적 방임학대와 정서표현성이 정서표현양가성과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노지영, 정윤경 (2010).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에 따른 아동의 정서표현양가성과 정서표현신념.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3(2), 57-71.
- 보건복지부 (2002). 2001년도 전국 아동학대현황 보고서.
- 보건복지부 (2012). 2012 아동학대현황보고서.
- 이경희, 김봉환 (2010). 정서표현양가성과 정서조절이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정서명확성, 정서강도 및 정서주의의 군집 비교.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2(2), 369-384.
- 이설아, 박기환 (2013). 유기 도식과 이성관계만족도의 관계에서 인지적 정서 조절 전략의 매개효과. 인지행동치료, 13(1), 1-17.
- 장정주, 김정모 (2008). 정서적 자각, 표현 및 정서표현에 대한 양가성과 대인관계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0(3), 697-714.
- 정윤경, 박보은 (2010). 정서 표현성과 정서표현양가성의 발달적 관련 변인: 회고된 어

- 머니의 정서 표현 양식.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3(4), 111-125.
- 조옥자 (2005). 어머니의 정서적 학대와 방임 및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이 아동의 우울성향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26(3), 141-161.
- 조은정 (2004). 아동기의 정서적 학대 경험이 대인관계 문제해결능력에 미치는 영향: 자기효능감과 통제소재를 매개변인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차미영 (2010). 아동기 외상과 초기 성인기 대인관계 문제 간의 관계에서 초기부적응도식의 매개효과.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최지경 (2007). 학대받은 아동과 일반아동의 정서기능과 정서조절의 비교연구.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최해연, 민경환 (2005). 정서표현에 대한 부정적 신념의 구조와 기능.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4(1), 239-257.
- 최해연, 이동귀, 민경환, (2008). 정서강도, 정서주의, 정서명료성 및 정서표현 양가성의 군집과 심리적 적응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2(4), 59-73.
- 한지숙, 이재연 (2005). 피학대아동의 가정복귀 후 심리행동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아동학회지*, 26(1), 123-135.
- 홍대식 (1998). 데이트 관계의 형성과 발전에 관련된 변인들.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2(2), 199-226.
- 厚生労働省 (2012). 平成23年度全国児童福祉施設所長會議資料.
- Allen, B. (2008). An analysis of the impact of diverse forms of childhood psychological maltreatment on emotional adjustment in early adulthood. *Child Maltreatment*, 13, 307-312.
- Beach, S. R., Smith, D. A., & Fincham, F. D. (1994). Marital interventions for depression: Empirical foundation and future prospects. *Applied & Preventive Psychology*, 3, 233-250.
- Beck, R. (2001). Cognitive content-specificity for anxiety and depression: A meta-analysis.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25(6), 651-663.
- Bentler, P. M. (1990). Comparative Fit Indexes in Structural Models. *Psychological Bulletin*, 107(2), 238-246.
- Bernstein, D. P. (2002). Cognitive therapy of personality disorders in patients with histories of emotional abuse or neglect. *Psychiatric Annals*, 32, 618-628.
- Bradbury, L. L., & Shaffer, A. (2012). Research on dating relationships and intimate partner violence: Emotion dysregulation mediates the link between childhood emotional maltreatment and young adult romantic relationship satisfaction. *Journal of Aggression, Maltreatment & Trauma*, 21, 497-515.
- Braithwaite, S. R., Delevi, R., & Finchman, F. D. (2010). Romantic relationships and the physical and mental health of college students. *Personal Relationships*, 17(1), 1-12.
- Browne, M. W., & Cudeck, R. (1993). Alternative ways of assessing model fit. In K. A., Bollen, & J. S. Long, J. S. (Eds.). *Tes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Newbury Park: Sage Publications.
- Coombs, M. M., Coleman, D., & Jones, E. E. (2002). Working with feelings: The importance of emotion in both cognitive-behavioral and interpersonal therapy in the

- NIMH treatment of depression collaborative research program. *Psychotherapy: Theory, Research, Practice, Training*, 39(3), 233-244.
- Davis, J. L., Petretic-Jackson, P. A., & Ting, L. (2001). Intimacy dysfunction and trauma symptomatology: Long term correlates of different types of child abuse. *Journal of Traumatic Stress*, 14(1), 63-79.
- DiLillo, D., Lewis, T., & Loreto-Colgan, A. D. (2007). Child maltreatment history and subsequent romantic relationships: Exploring a psychological route to dyadic difficulties. *Journal of Aggression, Maltreatment & Trauma*, 15(1), 19-36.
- Dutton, D. G. (1999). Traumatic origins of intimate rage. *Aggressive & Violent Behavior*, 4(4), 431-447.
- Eisenberg, N., Cumberland, A., & Spinrad, T. L. (1998). Parental socialization of emotion. *Psychological Inquiry*, 9(4), 241-273.
- Erikson, E. H. (1968). *Identity, youth and crisis*. New York: Norton.
- Emmons, R. A., & Colby, P. M. (1995). Emotional conflict and well-being: Relation to perceived availability, daily utilization, and observer reports of social support. *Journal of Personality & Social Psychology*, 68(5), 947-959.
- Freeman, N. (1999). *Constructive thinking and early maladaptive schemas as predictors of interpersonal adjustment and marital satisfaction*. (Doctoral dissertation). Biola University, California.
- Furman, W., & Shaffer, L., (2003). The role of romantic relationships in adolescent development. In P. Florsheim (Ed.), *Adolescent romantic relations and sexual behavior: Theory, research, and practical implications* (pp.3-22).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Glassman, L. H., Weierich, M. R., Hooley, J. M., Deliberto, T. L., & Nock, M. K. (2007). Child maltreatment, non-suicidal self-injury, and the mediating role of self-criticism. *Behaviour Research & Therapy*, 45(10), 2483-2490.
- Goldsmith, R. E., & Freyd, J. J. (2005). Awareness for emotional abuse. *Journal of Emotional Abuse*, 5(1), 95-123.
- Gross, J. J., & John, O. P. (2003). Individual differences in two emotion regulation processes: Implications for affect, relationships, and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 Social Psychology*, 85(2), 348-362.
- Hornor, G. (2010). Child sexual abuse: Consequences and implications. *Journal of Pediatric Health Care*, 24(6), 358-364.
- Howes, C., & Espinosa, M. P. (1985). The consequences of child abuse for the formation of relationships with peers. *Child Abuse & Neglect*, 9, 397-404.
- Kaplan, S. J., Pelcovitz, D., & Labruna, V. (1999). Child and Adolescent Abuse and Neglect Research: A Review of the Past 10 years. Part 1: Physical and Emotional Abuse and Neglect.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38(10), 1214-1222.
- Katz, I. M., & Campbell, J. D. (1994).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on and well-being: Nomothetic and idiographic tests of the stress-buffering hypothesis. *Journal of Personality & Social Psychology*, 67(3). 513-524.
- King, L. A. (1993). Emotional expression,

- ambivalence over expression, marital satisfaction. *Journal of Social & Personal Relationships*, 10(4), 601-607.
- King, L. A., & Emmons, R. A. (1990). Conflict over emotional expression: Psychological and physical correlates. *Journal of personality & Social Psychology*, 58(5), 864-877.
- Krause, E. D., Mendelson T., & Lynch, T. M., (2003). Childhood emotional invalidation and adult psychological distress: The mediating role of emotional inhibition. *Child Abuse & Neglect*, 27(2), 199-213.
- Lassri, D., & Shahar, G. (2012). Self-criticism mediates the link between childhood emotional maltreatment and young adults' romantic relationships.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31(3), 289-311.
- Lee, V., & Hoaken, P. N. (2007). Cognition, emotion, and neurobiological development: Mediating the relation between maltreatment and aggression. *Child Maltreatment*, 13(3), 281-198.
- Levinson, D. J., Darrow, C. N., Klein, E. B., Levinson, M. H., & McKee, B. (1978). *The seasons of a man's life*. New York: Knopf.
- Linehan, M. M. (1993). *Cognitive-behavioral treatment of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New York, NY: Guilford Press.
- Lloyd, S. A., & Cate, R. M. (1985). The developmental course of conflict in dissolution premarital relationships. *Journal of Social & Personal Relationships*, 2(2), 755-773.
- Loos, M., & Alexander, P. C. (1997). Differential effects associated with self-reported histories of physical abuse, verbal abuse, and emotional neglect in a college sample.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12, 340-360.
- Messman-Moore, T. L., & Coates, A. A. (2007). The impact of childhood psychological abuse on adult interpersonal conflict: The role of early maladaptive schemas and patterns of interpersonal behavior. *Journal of Emotional Abuse*, 7(2), 75-92.
- Mullen, P. E., Martin, J. L., Anderson, J. C., Romans, S. E., & Herbison, G. P. (1996). The long-term impact of the physical, emotional, and sexual abuse of children: A community study. *Child Abuse & Neglect*, 20(1), 7-21.
- Nemati, M. C. (1996). *Toward an understanding of relationships: A structural model of marital satisfaction*.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Georgia, Georgia.
- Pennebaker, J. W. (1985). Traumatic experience and psychosomatic disease: Exploring the rules of behavioral inhibition, obsession, and confiding. *Canadian Psychology*, 26(2), 82-95.
- Pennebaker, J. W., Hughes, C. F. & O'Heeron, R. C. (1987). The psychophysiology of confession: Linking inhibitory and psychosomatic processes. *Journal of Personality & Social Psychology*, 52(4), 781-793.
- Rellini, A. H., Vujanovic, A. A., Gilbert, M., & Zvolensky, M. J. (2011). Childhood maltreatment and difficulties in emotion regulation: Associations with sexual and relationship satisfaction among young adult women. *Journal of Sex Research*, 19, 1-9.
- Reyome, N. D. (2010). Childhood Emotional Maltreatment and Later Intimate Relationships:

- Themes from the Empirical Literature. *Journal of Aggression, Maltreatment, & Trauma*, 19(2), 224-242.
- Richards, J. M., Butler, E. A., & Gross, J. J. (2003). Emotion regulation in romantic relationships: The cognitive consequences of concealing feelings. *Journal of Social & Personal Relationships*, 20(5), 599-620.
- Shiner, R. L., & Masten, A. S. (2002). Transactional links between personality and adaptation from childhood through adulthood.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36(6), 580-588.
-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2012). *Child maltreatment: 2009*.
- Wei, M., Vogel, D. L., Ku, T., & Zakalik, R. A. (2005). Adult attachment, affect regulation, negative mood, and interpersonal problems: The mediating roles of emotion reactivity and emotional cutoff.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2(1), 14-24.
- Wenzlaff, R. M., & Bates, D. E. (1998). Unmasking a cognitive vulnerability to depression: How lapses in mental control reveal depressive thinking. *Journal of Personality & Social Psychology*, 75(6), 1559-1571.
- Wright, M. O., Crawford, E., & Del Castillo, D. (2009). Childhood emotional maltreatment and later psychological distress among college students: The mediating role of maladaptive schemas. *Child Abuse & Neglect*, 33(1), 59-68.
- Young, J. E, Klosko, J. S. & Weishaar, M. E. (2003). *Schema therapy: A practitioner's guide*. New York, NY: The Guilford Press.
- 1차원고접수 : 2014. 01. 14.
수정원고접수 : 2014. 03. 07.
최종게재결정 : 2014. 03. 10.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hood Emotional Maltreatment
and Early Adulthood Romantic Relationship Satisfaction:
The Mediating Effects of Early Maladaptive Schemas and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Hyunjeoung Cho

Seung-Yeon Lee

Department of Psychology, Ewha Woma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relationships among childhood emotional maltreatment(EM), early adulthood romantic relationship satisfaction, early maladaptive schemas(EMS) and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AE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self-report data from 310 adults. The mediating effect of EMSs, as well as the dual-mediated effect of EMSs and AEE, was significant for the relationship between EM and romantic relationship satisfaction. Based on these findings, effective intervention strategies were discussed for individuals who experienced EM as a child and are experiencing difficulties in romantic relationship. The importance of addressing EMSs was also emphasized.

Key words : emotional maltreatment, early adulthood romantic relationship satisfaction, early maladaptive schemas,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